

‘빌려준 돈’으로 바뀌도 퇴직금 먼저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직장인 A씨는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약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회사 측은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해당 금액을 ‘빌려준 돈(차용금)’으로 전환해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해당 채권을 ‘차용금’으로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A씨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던 시점에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하급심 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마6750 결정). 대법원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라고, 해당 채권의 실질이 임금 및 퇴직금인 이상 이는 “임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채권의 명칭을 차용금 등으로 변경해 합



/ChatGPT

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실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자”거나 “임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거나, 요구에 응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후 회사가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회사

측은 “해당 채권은 이미 법적으로 차용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러한 회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차단한 것이다.

법률상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타 채권에 우선해 언제든지 변제받을 수 있다. 즉,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당일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역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결론적으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채권의 명칭을 ‘차용금’이나 ‘대여금’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 및 퇴직금이라면 여전히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아시안게임이 낳은 ‘신의 아들’



기지 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신의 아들’로 불렸다. 병역 면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장군의 아들’도 있었다. 6방(6개월 복무 방위병·보충역)이다. 이어 18방(18개월 방위병)은 ‘사람의 아들’이다. 26개월 복무(육군 기준) 현역병은 ‘아들의 자식’이라고 했다. 지난 90년대에 그랬다.

썩쓸하지만 그만큼 군대란 곳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시안게임 때마다 불거졌던 군 면제 문제. 특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래 기억될 대회. 일본 사회인 팀 간신히 꺾고 금메달 땀 한국 야구. 이어진 인터뷰 논란. 급기야

축구 금메달과 일부 선수의 엇나간 태도. 마치 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양 그라운드에서 환호했다. 야구와 축구 2종목에서만 신의 아들이 수십 명 추가됐다. 국민 감정은 폭발했고 병역 특례 폐지론은 10월 여의도 국감장으로 옮겨 붙었다.

단계적 축소 방침이 병무청 등에서 언급된다. 법 개정 등에 따른 특별법 시행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SNS 등에는 당장 축구 3인방부터 군대 보내라는 의견도 봇물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 정서를 크게 건드렸다. 대한민국에서 군 입대 여부는 대학입시와 함께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후자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려는 곳이란 측면에서 전자와 다르다. 편법 등의 의한 면제 또는 공익 근무, 부정간 길을 통한 입학 시제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은 분노했다.

다시 국제 스포츠대회로 화두를 돌려 본다. SNS상 흑자는 이렇게 묻는다. “여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랑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무슨 혜택을 받나요?” 일리 있는 말이다. 여기서부터 이미 공정하지 않다. 군 미필 남자 선수만을 위한 특례 적용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외신도 지적한다. 면제받기 위해 국제대회 나가는 나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국위 선양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국격을 훼손하는 양상으로 변질됐다.

올해 지구촌 사람들 상당수가 카보베르데라는 작은 섬나라를 알게 됐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의 단적인 예다. 또 이를 거다 이루고도 나이 마흔에 대표팀 유니폼 입고자 국 위상 입증해 보인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등.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난다.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 (음 9월 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60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72년생 무난하게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84년생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49년생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61년생 사람을 배반하지 마세요. 73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85년생 시간을 끝낼수록 좋지 않으니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50년생 여행은 상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2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4년생 실패한 거듭될 뿐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86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세요.



51년생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63년생 마음 편히 즐겁게 사세요. 75년생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87년생 단전에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하세요.



52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64년생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6년생 주변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88년생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3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65년생 일마다 여의 하니 천금을 얻을 것입니다. 77년생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89년생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54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66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78년생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90년생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신도 있겠으나 참으세요.



55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것입니다. 67년생 귀인이 귀하를 도우러 오는 중입니다. 79년생 독서를 즐겨 보세요. 91년생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배품면서 사세요.



56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8년생 현재의 막힌 상태를 한탄하지 마세요. 80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은입니다. 92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7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69년생 살아왔던 인생을 차근차근 되새겨보세요. 81년생 꾸준히 노력하세요. 93년생 귀인을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58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습니다. 70년생 과감하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82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4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9년생 거래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71년생 저녁에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83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신앙

필자의 어릴 적에 신앙촌(信仰村)이라는 곳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신앙촌은 천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신앙공동체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고유명사로 인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신앙촌에서 만든 간장이나 내의 등이 상품화되어 유통되었던 기억도 떠오르는데, 나름 제품의 질이 괜찮다고 하여 입소문을 타고 꽤나 인지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난다. 말이 나온 김에 인터넷을 보니 ‘신앙촌푸드’라는 사이트도 보인다. 신앙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도들의 경제적 자립구조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가 된다. 역시 우리나라의 원 불교도 지금은 모르겠으나 초기 발원 시기에는 신도들의 조합을 세워 공동 경작 등의 경제자립 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특정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마을이나 집단 구락지로서 전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신앙촌이 있기는 하다. 미국의 유 타주는 잘 알려진 것처럼 몰몬교도들의 신앙공동체로 유명한 곳인데, 예 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창시자에 대한 테러와 박해를 겪자 미국 중 서부로 이주하여 유타주를 설립하고 주도이자 종교촌인 솔트레이크시티를 건설한 것은 기독교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이보다 규모는 작으나 이미시파도 그러하데,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으나 편견과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한 재세례파 개신교 종파로서 펜실베이니아주, 오크하이오주, 인디애나주 등에 종교촌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신앙촌이 지구상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어떠한 종교가 되었든 모든 종교는 신앙을 근본으로 한다. ‘믿고 우러르’ 것이 신앙인 것이다. 믿고 우러르는 대표적 행위는 기도이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여 예경을 하며 발원을 고한다. 숨 한 번 고르며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며 내려놓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21-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5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신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7	3					
					2	4		
								1
								4
	2	9	8		5	3	1	
	1							
8								
		1	9					
				8	7	1	5	

결합형 �도쿠

스도쿠 365 0

결합형 �도쿠 110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9	3	2	8	
					8			
	7					5		
			3			8		
	2						7	
		8			2			
		9					2	
			1					
8	5	9	3	7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1	2	8	7	9	8	6
7	8	9	8	9	6	1	2	7
6	8	2	9	1	2	8	7	9
9	2	8	6	2	8	7	1	9
2	1	8	9	7	8	6	2	9
9	7	6	1	2	9	2	8	8
1	2	8	9	9	8	6	7	
8	9	7	2	6	1	8	9	2
8	6	9	7	8	2	2	9	1

1	9	7	2	8	6	9	8	2
8	9	6	7	2	1	9	8	2
8	2	2	9	8	6	1	7	
9	1	8	2	2	9	8	7	6
7	2	9	6	8	9	8	2	1
2	6	8	1	7	8	2	9	9
6	8	9	9	1	2	7	2	8
9	7	1	8	9	2	2	6	8
2	8	2	8	6	7	1	9	9